

Dave Mathewson 박사, 요한계시록, 강의 11, 요한계시록 6장 두루마리 인봉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계시록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Dave Mathewson입니다. 이것은 11회, 요한계시록 6장, 두루마리 봉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두루마리의 인이 풀려 열릴 때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어린 양이 일곱 인 중 첫 번째 인을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네 생물 중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보니, 내 앞에 백마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들고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복에 열중한 정복자로서 나셨습니다.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불타오르는 붉은 말이었죠. 그 위에 탄 자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를 받았느니라.

그에게 큰 칼이 주어졌습니다. 어린양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라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내 앞에 있었습니다. 그 탄 사람은 손에 저울 한 쌍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내가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밀 한되로 하루 품삯을 받고 보리 석되로 하루 품삯을 삼고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어린양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넷째 생물의 음성이 이르되 오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내 앞에 있었습니다. 그 탄 사람의 이름은 죽음이었고 하데스가 그 뒤를 바짝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땅의 들짐승으로 땅의 사분의 일을 죽이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더라.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으실
때까지 어느 때까지리이까 하더라

이에 그들 각각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할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 더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가
여섯째 봉인을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염소털로 짠
베옷처럼 검어지고 온 달이 피처럼 붉어지며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흔들려
무화과나무에서 늦은 무화과나무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더라.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리며 물러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움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와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그들은 산과 바위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가장 많이 묻고 대답하려는 질문
중 하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인장, 특히 네 마리의 말과 관련된 인장은
무엇입니까? 둘째, 이러한 일이 언제 발생했습니까? 이런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인가요? 요한은 미래의 일련의 인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련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이 인장,
특히 처음 네 마리의 말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이러한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확히 언제 일어났는지
또는 일어날 것인지를 식별하려고 노력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초의 작가와 최초의 독자가 아마도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것으로 거의
2,000년 전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장르의 차이, 역사적 거리를 인지하고
극복해나가는 데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요한계시록 6장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바로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나의 주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로마의
 우상숭배적이고, 불경건하고, 억압적인 제국과 그 경제에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실수에 가담한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일련의 인봉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봉 6번은 우리를 위대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러므로 나는 로마가 관심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상황을 취하여
 최후의 심판, 주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을 배경으로 삼고 있음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상 어느 시점에서나 로마의 실수에 참여하고 반복하는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는 또한 요한이 서로 다른 연속적인 제국을 본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제국까지 이어지는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 그러므로 Richard Baucom이 말했듯이, 예언적
 모자에 맞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착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처음
 네 개의 인은 함께 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했듯이, 우리는 이 모든 사건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서로의 결과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땅을
 달리는 말의 형상과 일체화되어 있다. 말 이미지의 주요 배경 중 하나인 배경은
 역시 구약성서입니다.

스가랴 6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요한은 실제로 이 말들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이 무엇인지 독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스가랴 6장은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선지자로서
 대부분이 환상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과 같은 후기 묵시
 작품의 전조입니다. 조금 더 일찍. 하지만 여기 스가랴가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6장). 처음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보니, 두 산 사이에서 네 대의 병거가 나오는데, 그것은 청동
 산이었습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요, 둘째는 검은 말들, 셋째는 흰 말들,
 넷째는 얼룩무늬가 있는데 모두 힘이 세더라. 나는 나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주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나에게 대답했습니다. 이는 하늘의 네 영이 주님과 온 세상 앞을 떠나 나가는 것입니다. 검은 말을 탄 자는 북쪽으로 가고, 백마를 탄 자는 서쪽으로 가고, 얼룩무늬를 탄 자는 남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힘센 말들이 나가자 온 땅을 두루 다니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 땅에 두루 다니라 하시니 그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니니라 그리고 그가 나에게 소리쳤다. '보아라, 북쪽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 북쪽 땅에서 내 영을 안식처로 주었다.

내가 읽는 요점은 단순히 요한이 그들과 조금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은 본문, 특히 스가랴 6장과 같은 본문에서 자신의 환상에 대한 이미지와 설명을 끌어낸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요한이 말과 동일시하는 재앙의 유형과 사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곳으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종말론적 담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국에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환난의 징후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반대라고 말씀하십니다. 흥미롭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대개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일과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지진과 전쟁과 기근을 보고 이것이 끝임에 틀림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에 대하여 경고하시며 속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징후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며, 종말 자체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이 교회 역사, 즉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즉 그가 다시 오셔서 역사를 완성하실 때까지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특징있게 될 것들을 암시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24장 4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놀라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산고의 시작이다.

그러면 너희는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도록 넘겨질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 때에는 많은 사람이 돌이켜 서로 배반하고 미워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리고 나는 바로 거기서 멈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방금 읽은 네 마리 말, 인장, 네 마리 말과 관련된 인장 재앙에서 읽은 예수께서 언급하신 몇 가지 사항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 예수께서 강조하신 점에 유의하십시오. 죽음에 대한 언급을 주목하십시오. 기근에 대한 언급도 주목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6장에 나타나므로 요한은 아마도 스가랴 6장과 같은 본문과 함께 예수 자신의 종말론적 담론과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전주곡 역할을 할 일어날 종류의 일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재림, 곧 장차 올 주님의 날까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네 마리의 말, 특히 다른 두 개의 인장에 대해 생각하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하고, 우리가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한 배경 정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 세상에 대한 이러한 심판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인류에 대한 심판을 쏟아 붓고 계십니까? 내가 말했듯이, 나는 주로 6장이 로마의 일 처리 방식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하고, 사악하고,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제국의 경제를 심판하고, 제국 전체와 그 일을 하는 방식을 심판합니다. 따라서 1번 말, 즉 1번 인장부터 시작하면 그것이 백마입니다. 이제 백마는 나가서 이기는 자, 이기기를 힘쓰는 자, 면류관을 쓰고 활을 가진 자로 묘사됩니다.

흥미롭게도 이를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이해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이 첫 번째 말은 요한계시록 19장과 11절 이하에서 흰옷을 입고 말을 타고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나와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다른 긍정적인 제안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복음의 승리나 그와 유사한 그림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나머지 세 마리의 말은 분명히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며 분명히 심판의 이미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말을 심판의 상징으로 삼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을 스가랴 6장 및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관시킨다면, 나는 이것을 그리스도나 복음 정복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에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받아들일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견해인 두 번째 견해는 일부 사람들이 이것을 미래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즉, 말을 타고 있는 이 사람, 말을 탄 이 사람이 실제 사람이다. 그것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를 오직 미래로만 보는 계시록 접근 방식은 종종 이것을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교회가 철거된 후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파괴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미래의 사건으로 직접 볼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잠시 후에 논쟁을 벌이고 이것을 미래의 사람이나 사건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 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세 번째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나는 이 기수가 작가가 아니라 상징하는 기수는 단순히 정복과 군사력의 상징일 뿐이라는 견해가 더 선호된다고 생각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왕국 대 왕국.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전쟁의 맥락에서 군사력과 정복의 상징을 발견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이미지가 로마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 같아요. 즉, 로마는 군사적 정복과 군사력을 통해 평화를 확립하였다.

사실, 이것을 연결하는 방법은 아마도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을 타고 긴옷을 입고 나오시며 백마를 타고 나오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패러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승리하실 정복과 승리에 대한 빈약한 반영이자 왜곡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로마 제국의 특징이었던 군사적 확장, 정복, 폭력적인 전투를 반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로마가 성도들을 정복하려 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12장, 특히 13장에서 우리는 로마가 패배하고 나와서 전쟁을 하고 성도들과 싸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말은 아마도 로마를 강력한 군대로 지칭할 것입니다.

정복에 열심이라고 하며, 싸움과 정복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전쟁을 통해 승리합니다. 군사력을 통해서만 경계를 확장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로마가 평화를 제공한다는 로마 신화의 팩스 로마나(Pax Romana)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대조적으로 로마는 실제로 대가를 치르고 평화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것이 두 번째 말에도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로마는 폭력과 전쟁을 통해 대가를 치르고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말은 로마가 정복과 정복, 전쟁에 열중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평화를 확립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말, 즉 인장 두 번째는 유혈과 학살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붉은 말입니다.

이 말을 탄 사람에게도 칼이 주어졌음을 주목하십시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제 생각에는 요한이 로마에 대한 관점을 해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로마가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준다는 팍스 로마나 신화에 부합합니다.

로마는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는 제국 전체에 축복과 번영,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John은 이것이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줍니다.

로마의 평화 약속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것은 전쟁과 유혈, 폭력입니다. 여기서의 검은 다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로마는 폭력을 행하고 성취하고 정복하고 승리를 이룬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궁극적으로 그의 칼을 사용하여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1장에서 그 이미지를 보았습니다. 19장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검은 아마도 그것과 대조를 이루기 위한 것일 것이다. 로마도 칼을 휘두르지만 폭력과 유혈사태를 자행합니다. 그것은 대가를 치르고 평화를 정복하고 확립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여기서 폭력적이고 피에 굶주린 제국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의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하면 분명해집니다. 당신은 그것이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갈등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는 이번에도 유혈 사태로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그것은 국가들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것은 제국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폭력과 유혈사태를 통해 제국을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도 로마 황제들은 서로를 학살하거나 왕좌에 위협이 되는 다른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지배권을 놓고 다투고 왕좌를 다투는 것은 흥미로운 일련의 유혈 행위와 폭력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기원전 44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말이죠. 그 후, 그를 계승하기 위한 일련의 흥미로운 경쟁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라이벌이 처형되는 이야기를 연달아 발견합니다.

서기 68년과 69년에는 실제로 짧은 기간 동안 권력을 잡았지만 곧 살해된 세 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역사는 권력을 얻고,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를 전파하기 위한 유혈과 학살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5장에서 고통스러운 희생을 통해 죽임을 당하고 도살된 어린 양으로서 승리하시는 방식과 대조적으로 로마는 군사력, 폭력과 유혈, 그리고 끝없는 전쟁을 통해 승리하고 있음을 봅니다. 갈등과 갈등.

그렇다면 세 번째 인장에 해당하는 세 번째 말은 검은 말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 말, 이 말을 탄 사람은 저울을 들고 옵니다. 1세기 독자라면 즉시 이 글을 읽고 특히 상업 분야에서 불균형을 상징하는 규모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언어를 부당한 규모로 이해하기 위해 구약성서의 잠언 몇 개와 다른 곳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상업과 무역의 상황에서 규모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서 정의가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울을 들고 있다는 것은 이 인장과 이 말이 상업의 불균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상징합니다. 제 생각에는 로마 제도의 불균형과 정의의 왜곡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와 로마의 상업 시스템.

그리고 이 말은 그 결과 고통과 기근을 분명히 암시합니다. 전쟁과 정복에 대한 열망, 자신의 통치를 전파하려는 열망에서 다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군사력과 유혈 사태 및 내부 갈등을 통해 그러한 상황의 결과는 종종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기근과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종의 진전이 있습니다.

이 인의 진술, 즉 흥미로운 특징은 6절에 있는 익명의 음성에서 나오는 진술인데, 거기에는 네 생물 사이에 음성이 있다. 이것이 네 생물 중 하나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그들 사이에 익명의 목소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인가요? 내 성경에는 빨간 글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 목소리가 정확히 누구인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목소리가 신인지, 어린 양인지, 아니면 어떤 천사인지는 확실하지 않은 익명의 목소리를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음성이 말하는 바입니다. 밀 한되로 하루 품삯을 받고 보리 석되로 하라 기름과 포도주는 해롭게 하지 말고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간단합니다. 여기에 묘사된 것은 기근, 즉 밀이 하루 품삯 전체에 해당하는 기근 상황인 것 같습니다. 즉, 하루에 밀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입니다. 즉, 6절에 보면 그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NIV에서는 밀 1퀴트를 번역하고 있는데, 밀 1퀴트가 한 사람을 먹이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밀 한 리터가 하루 품삯이라고 말합니다. 즉, 귀하의 번역 중 일부는 데나리온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대략 하루 품삯에 해당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밀이 필수 주식이었을 밀로 한 사람에게 먹이는 것은 누군가를 부양하기 위해 먹는 것이 일반적이고 바람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온 가족은 고사하고 단 한 사람의 경우, 한 사람의 일일 밀 배급량은 하루 품삯 전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루 품삯으로 보리 석 퀴트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보리 3퀴트는 한 가족이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했지만, 하루 품삯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보리는 밀만큼 탐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밀만큼 유익하지도 영양가도 높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덜 중요한 곡물인 보리 3퀴트도 대략 작은 가족이 먹일 수 있을 만큼의 하루 품삯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밀과 보리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미지는 전쟁 등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제 기근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근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주식인 밀은 한 사람이 먹을 만큼의 하루 품삯이 듭니다. 그래서 가족이 먹을 돈이 부족해요.

그리고 덜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주요 생계 수단인 보리 3퀴트는 소규모 가족을 먹이기에 충분하며 여전히 하루 종일 품삯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필수품에 대한 이러한 엄청난 가격은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흔한 음식일 뿐이고, 귀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엄청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밀과 보리는 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부자들의 음식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공통된 필수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오직 부자만이 가족을 먹일 만큼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상황이 균형을 잃은 경제임을 보기 시작합니다. 변태입니다. 그것은 억압적이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또 있습니다. 그 음성은 또한 기름과 포도주를 상하게 하지 말라는 말로 끝난다. 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증가하는 인구를 먹이기 위해 로마가 도시 자체를 성장하고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밀, 보리, 옥수수 등과 같은 곡물을 수입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도시와 제국을 유지하려면 곡물을 수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종종 이것은 제국의 나머지 부분, 그들이 종종 착취했던 일부 지역을 희생시키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계속 증가하는 인구를 먹이기 위해 지방에서 곡물을 수입할 것이고, 이는 지방이 더 적은 양의 곡물을 갖게 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게다가 기름과 포도주는 어디서 나오나요? 저자는 기름과 포도주에 손을 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름과 포도주가 부자들의 음식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지만, 기름과 포도주는 아마도 부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단지 필수품이었고 일반적인 소비, 기름 및 포도주에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기름과 포도주가 밀이나 보리처럼 주식이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시 균형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생활 필수품인 밀, 보리 등은 부족하고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서 부자만이 감당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근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은 것, 즉 기름과 포도주가 풍부해졌습니다.

이 언어에 반영된 것은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는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종 일어난 일은 석유와 포도주를 로마로 거래하고 수출하는 것이 더 유리했기 때문에 많은 부유한 지주들이 밀, 옥수수, 주식 등을 재배하는 대신 기름과 포도주를 위해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를 재배했다는 것입니다. 무역을 위해.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 경제는 엉망이거나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생활 필수품, 밀과 같은 더 적은 것의 필수품이 부족하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지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기름이나 포도주처럼 필수품이 아니었던 것, 삶에 필요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풍부해졌습니다. 아마도 부유한 지주들이 그런 것들을 재배하고 수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상업을 위해. 그래서 당신은 일종의 거꾸로 된 경제나 상업을 가지고 있고, 이제 와인과 석유로부터 혜택을 받는 부유한 지주들이 있고, 모든 필수품은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들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John은 그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거꾸로 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는 결국 그 경제가 주변 지역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한이 하고 있는 일은 로마의 경제를 공격하여 정복에 열중하는 억압적이고 신이 없고 우상 숭배적이고 폭력적인 제국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통치를 세우는 데 열중하면 폭력과 유혈 사태뿐만 아니라

기근과 왜곡되고 뒤집어지고 모든 것이 엉망이고 균형이 맞지 않는 경제가 발생합니다.

즉, 로마라는 도시는 다른 나라들, 그리고 나머지 제국의 희생을 치르고 살아남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로마에 수많은 기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요한이 특정한 기근을 언급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언어가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곡물 부족으로 인해 모든 포도원을 베어내라는 도미티아누스의 칙령을 반영했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즉, 포도주를 재배하는 데 사용되는 포도원은 벌목되어야 하고 대신 옥수수나 다른 곡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함과 제국이 이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유한 지주들이 포도 재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기름이나 포도주 같은 것들은 가장 유리하고 유익할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반영되어 있는지 전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이 도미티아누스의 칙령을 반영한다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 목소리는 로마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으로 로마 경제의 불평등과 불균형을 보여주고 지적하는 방법일 뿐이라고 다시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 정복과 정복에 열중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것은 거꾸로 된 경제를 통해 국가에 대한 심판의 일부입니다. 사실, 주의 깊게 읽어보면 도미티아누스의 칙령은 여기 6장과 세 번째 인에서 말하는 음성과 정반대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봉인 판결은 로마의 정복과 왕국 확장에 대한 열망, 아마도 팍스 로마나에 대한 공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장, 결과적으로 정복에 대한 열망은 대외적으로나 어쩌면 내부적으로 유혈과 폭력의 대가를 치르고 평화를 이룩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는 종종 기근과 거꾸로 된 경제, 균형이 무너지고 형평성이 부족하며 억압적이고 불공정한 경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말, 즉 4번 인장은 창백한 말입니다. 보시다시피 색깔은 어떤 의미에서 말의 색깔이 각각의 일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을 대표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말은 밖으로 타고. 그러나 네 번째 말은 처음 세 말의 정점에 해당하는 창백한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청황색 말은 죽음으로 묘사되고, 그 탄자의 이름은 죽음으로 묘사되고, 하데스가 그 뒤를 바짝 따른다.

그들은 땅의 사분의 일을 칼로 죽이는 권세를 받았는데, 이는 처음 두 인을 요약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기근과 전염병을 요약한 것이고, 그다음에는 들짐승들이 세 번째 인을 요약한 것인데, 특히 기근, 불의한 자들, 전염병, 불의한 경제, 전쟁으로 인한 기근. 따라서 봉인 4번, 말 4번은 처음 4개의 절정이자 요약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봉인은 죽음과 하데스를 의미합니다. 하데스는 죽은 자의 장소, 죽음의 장소이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게 될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쟁의 결과, 정복의 결과, 유혈 사태, 기근, 거꾸로 된 경제의 결과로 인해 땅의 많은 곳, 특히 로마 제국 내에서 죽음이 초래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합치면 내 생각에는 처음 네 개의 인은 로마의 군사적 확장, 경제적 관행, 제국 전체에 평화, 이익, 번영을 제공하겠다는 로마의 주장을 폭로하고, 이 인장은 하나님의 심판이며, 로마에 대한 어린 양의 심판처럼, 평화와 번영에 대한 로마의 약속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것은 불안, 갈등, 끊임없는 분쟁의 대가로 옵니다.

유혈 사태, 폭력, 죽음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것은 기근과 균형이 무너지고 거꾸로 된 경제의 대가로 왔고, 그 결과는 로마 제국 내의 사람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거꾸로 뒤집힌 제국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묵시적인 방식으로 요한은 로마의 실제 모습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피에 굶주린, 폭력적이고, 자신의 제국 내에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다른 나라들을 착취하는 억압적인 제국이며, 그것이 약속하는 평화와 번영이 정말로 신기루라고 약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국을 유지하고 만물에 대한 통치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위해 죽음과 유혈 사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갈등과 전쟁, 유혈 사태, 분쟁, 폭력, 경제적 불평등과 붕괴로 황폐해진 제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됩니다.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시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요한이 하고 있는 일 중 하나가 로마 조약에 대한 로마의 주장을 공격하고 평화와 안전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2장과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이 2장과 3장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로마 제국과 타협하려는 교회, 부와 번영을 로마에 의존하는 교회, 로마의 상업과 종교에 참여하고 로마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회를 위한 평화와 번영에 관한 6장은 실제로 그렇게하기를 원한다면 6장에서 로마의 심판에 참여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대신 로마는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사악한 로마 제국을 심판하고 계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이미 로마 왕국과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심으로써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는 과정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항하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대신 로마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증거를 유지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두 봉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세 가지 문제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나는 그들이 그렇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인의 각각과 함께 네 생물 중 하나가 말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일이 몇 번이나 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6장 1절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어린양이 여섯 인을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은 어린양이 인봉을 떼시고 네 생물이 말들을 부르기까지 일어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몇 군데에서 동사의 수동형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4절에서는 그에게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몇 번 우리는 수동태가 주어졌음을 발견했는데, 이는 이러한 일들이 허가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어린 양과 여기에는 4장과 5장도 포함되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6장과 그 이후의 모든 심판 장면은 보좌에서 나오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것은 어린 양과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들을 주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정복한다는 사실, 내부 갈등과 싸움, 전쟁과 불화, 제국에서 그들의 통치를 유지하고 유지하기 위한 유혈사태와 폭력이 있다는 사실, 심지어 내부적으로는 황제가 왕좌에 남아 있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기근, 경제가 실제로 균형을 잃고 엉망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기근과 죽음을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로마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합니까? 어느 제국에서나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글쎄요, 우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일어나는 자연적인 결과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요한계시록 6장은 이것이 여전히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이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그 일을 하여 이 모든 나쁜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대신, 로마서 1장과 18절은 하나님께서 인류, 특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한 것에 대해 비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로마서 1장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대신에 그들이 하는 일은 오히려 창조물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숭배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쏟아지고 있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진노, 죄와 죄 많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로마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신다는 흥미로운 문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죄에 넘겨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죄에 넘겨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죄에 넘겨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그들의 죄, 정복하려는 욕망, 그들이 전쟁에 열중하고 있다는 사실, 폭력, 경제적 관행에 넘겨줌으로써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곳에 넘겨주실 것이며, 그들은 실제로 악하고 경건치 않으며 우상 숭배적인 행위의 결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권력을 절대화하고, 자신을 신으로 자처하며, 자신의 통치를 통치하고 확산시키며, 폭력과 전쟁, 유혈 사태를 통해 자신의 왕국을 유지하는 다른 국가나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들을 그 죄와 그 죄의 비참한 결과에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독교인도 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즉, 로마제국에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 없었다면 전쟁과 유혈 사태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로마나 2장과 3장에 나오는 로마 일곱 도시의 어느 속주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여기에 나열된 몇 가지 일들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영향을 받는다면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 있습니까? Greg Beal의 논평에서 다시 한 번 제안한 내용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을 당했을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연단하고 시험하며 인내와 충실을 낳는 역할을 했다고 암시합니다. 오직 불신자들에게만 이러한 일이 심판을 가져올 것입니다.

사실 2장과 3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일부 교회들은 로마가 행하는 일과 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로 인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런 일들로부터 육체적으로 보호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그들에게는 심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건하게 하고 연단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인내와 신실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내를 이루는 수단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사람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나중에 나팔과 대접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다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일어나는 주제 중 하나는 로마와 사악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맥락에 있으며, 다시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선택한 다른 제국은 이제 하나님이 이 현재의 창조물을 일종의 심판하고 해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1장과 22장에 등장할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는 탈창조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와 그 제국과 그 경제를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새로운 창조의 출현을 가져오기 위해 이 현 세상을 심판하고 해체하거나 쇠퇴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5번 인장은 네 마리의 말을 중심으로 한 네 가지 재앙이었던 처음 네 인과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인 번호 5가 반드시 전염병은 아닙니다.

5번 인에 심판의 메시지가 내재되어 있지만, 5번 인 자체는 네 마리의 말로 확인된 처음 네 인과 같은 심판이나 사건에 대한 기록은 아닙니다. 대신 5번 인봉의 6장, 9장, 11장에서 처음 네 인의 영향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추종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로마 제국에 의해 주로 학살되거나 처형된 사람들입니다.

특히 요한 시대에는 로마 속주 관리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안디바와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영향을 받은 사람들, 즉 처음 네 인의 영향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추종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이제 장면은 5번 인봉과 함께 땅에서 다시 하늘로 다시 전환됩니다. 다시 질문에 답하면, 6장에 나오는 이러한 심판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인이 하는 일은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증언으로 인해 로마의 손에 고통을 받는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6장에서 다섯 번째 인은 중요한 주제를 예상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옹호입니다. 그들의 고통,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고통,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한 그들의 신실한 증언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은 충실한 백성들을 옹호하실 것입니다.

이 인에서, 인 5번에서 성전 이미지를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그것은 믿음 때문에 지금 인봉된 제단 아래서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단 역시, 이것은 아마도 8장 3절과 5절에서 다시 등장할 제단일 것입니다.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는 사실은 제단은 아마도 성전의 번제단을 반영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분향단과 번제단의 결합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영혼들이 하늘 제단 아래 있다는 사실은 다시 하늘을 성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거처이다.

당신은 물리적인 성전에 대한 제단의 형태와 성전의 물리적 특징에서 하늘의 대응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사실은 아마도 영혼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죽음을 당한 자들, 죽음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여기 있는 영혼들은 아마도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삶을 암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곧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은 여기서의 언어에 주목합니다. 인 5번에는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5장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 어린양에게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과 같은 이유로, 즉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신실한 증인과 간증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용어들은 1장에서 이미 소개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신실한 간증으로 인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을 당하게 되었고 이제 그들의 영혼은 하늘 제단 아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그들의 피를 위해, 그들의 적들이 벌을 받고 그들의 피의 복수를 위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제단과 관련하여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아마도 그들의 죽음을 희생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단과 관련된 그들의 피에 대한 그들의 언어는 아마도 그들의 죽음을 희생이라는 용어로 묘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외치는 부르짖음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 전에 이것에 대해

말할 또 다른 것은 우리가 그들의 신실한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언어를 보기 시작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이 자신의 신실한 증언 때문에 목숨을 바친 안티파스라는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미지는 아마도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있을 것임을 암시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기본적으로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기 위해 쓰여졌다는 생각을 자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제국 전체에 걸친 박해가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거리로 끌고 나가서 원형극장으로 끌고 가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승인된 박해는 없습니다.

그것은 2세기, 3세기, 4세기 초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요한은 로마제국과 교회의 충돌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신실한 증언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고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을 겪게 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10절에 나오는 그들의 복수에 대한 부르짖음은 구약의 비유에 비추어 더 정확하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까지 어느 때까지니이까?”라고 말할 때 이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땅의 거민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중요한 용어이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짐승의 편에 선 자들, 사탄의 왕국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 등 부정적인 용어로 등장합니다.

당신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 피를 갚아 주실 때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나는 이것이 구약성서의 표현인 것처럼 적들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외침이 아니라 다시 그들의 피가 정당함을 얻고 그들의 죽음이 죄 없음을 보여 달라는 외침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헛되이. 즉, 그들은 죽음을

겪었습니다. 로마와 기독교인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그들이 무가치하며 우리가 그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쓸데없이 무의미하게 죽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할 일은 그들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은 입증되고 보상을 받아야 하며, 이는 실제로 20장과 다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한 제국의 손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죽이고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에 반대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측면에서 정의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죽음과 고통과 죽음을 보여주는 변호와 보상도 의미합니다. 그들의 신실한 증언으로 인한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편 79장에서도 복수를 요구하는 비슷한 부르짖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 주님, 당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행동하실 때까지 언제까지입니까? -- 호세아 1:4.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피를 갚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시 구약의 언어를 선택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죽인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들에게 상을 주시고 그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Dave Mathewson입니다. 이것은 11회, 요한계시록 6장, 두루마리 봉인입니다.